▶▶ 매일 INDEX

4면
전북대,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한다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5년 1월 17일 금요일 (음 12월 18일) 제3667호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올림픽 유치 기원 퍼포먼스… 2025년 전북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

16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열린 2025년 전북 사회복지인 신년 인사회에 김관영 도지사와 문승우 도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036년 하계 올림픽 전북유치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전북 벤처펀드 1조원 결성 가시화

창업초기 주력 '크립톤'·신산업 '비엠벤처스' 등
자치도, 운용 투자사 2개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6월 안에 조합 결성 따라 2028년까지 총 60억 출자
민선8기 들어 3년 만에 6778억원 결성 예상돼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벤처기업과 창업 중소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2025년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운용 투자사 2개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이달 1월 3일까지 운용사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4개 업체가 신청했으며,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펀드 운용 계획, 금융투자 및 산업분야 전문성, 경력 및 투자·회수실적, 재무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운용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운용사는 2개 분야, 총 2개사로 △창업초기 주력산업 분야의 '크립톤', 신산업 분야의 '비엠벤처스'다.

선정된 2개사는 올해 6월 안으로 조합을 결성해야 하며, 전북자치도는 결성된 2개 조합에 오는 2028년까지 총 60억원을 출자하게 된다. 결성액 중 최소 126억원이 관련 분야 도내 기업에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주력산업 분야 운용사인 크립톤은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역량과 도외 초기 유망기업 이전을 제시했고, 신산업 분야 운용사인 비엠벤처스의 소부장 밸류체인을 활용한 오픈이노베이션 연계와 도외 기업 이전 등을 통해 도내 기업의 밸류업 및 도외 유망기업 유치 성과가 기대된다.

전북자치도 출자사업에 시군이 국내 최초로 참여(익산 10억원, 정읍 10억원)하면서 벤처펀드 결성이 탄력을 받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타 시군까지 펀드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김관영 민선8기 전북자치도는 벤처펀드 1조원 시대를 목표로 매년 벤처펀드를 초과 결성하며, 출자약정액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도는 민선8기 들어 3년 만에 6,778억원(출자약정액 485억원)의 벤처펀드 결성이 예상되고 있어 누적 1조원 결성의 도정 목표 달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혁신성공 벤처펀드 결성을 위한 올해 첫 파트너 선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앞으로 중기부, 산업부, 농림부 등 중앙부처 및 정책출자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벤처펀드를 결성하고, 도내 창업·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국제영화제, 지역경제 활성화·소상공인 지원 동참

시-조직위, 제휴업체 기존 44곳에서 최대 60곳으로 확대

전주시가 극심한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는 가운데 전주국제영화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동참키로 했다.

16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국제영화제는 영화제 방문객과 지역 상권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영화제 기간 제휴업체 운영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제휴업체 확대 운영은 전주지역의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과 협력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영화제를 찾는 관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시와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는 지난해 44개였던 제휴업체를 올해는 최대 60개까지 제휴업체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카페와 식당을 중심으로 운영해온 제휴업체를 올해는 의류점과 안경점, 미용실, 편의점 등 다양한 업종을 포함시켜 보다 폭넓은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특히 시는 전주국제영화제가 영화의 거리와 주변 골목상권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영화제 기간 전주를 찾는 수만 명의 국내외 관객들에게 제휴업체 정보를 제공하고, 관객들이 적극적으로 지역 상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3월부터 영화의 거리 및 객리단길, 웨리단길 중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문을 통해 사업안내 및 제휴업체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도민 목소리로 도정 설계

김관영 지사, 민선 8기 3년차 맞아 내달부터 시군 순방
'한계 넘어 더 큰 도전으로' 슬로건 아래 도정 방향 공유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8기 3년차를 맞아 2월부터 시군 연두 방문에 나선다.

1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시군 연두방문은 오는 2월 3일 전주시를 시작으로 도내 14개 시군을 순차적으로 찾아 도정 운영방향을 도민들과 공유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계를 넘어 더 큰 도전으로!, 도민과 함께 전진하는 전북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이번 연두방문은 도민과의 열린 대화를 핵심으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2024년 도정 성과를 알리고 2025년 운영계획을 공유하는 등 민선8기의 성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번 연두방문은 도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도는 현 시국을 감안해 프로그램을 간소화하면서도 도민과 함께하는 현장 대화를 중심으로 운영하며, 이를 통해 지역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군수와 시군의회 관계자, 지역 오피니언 리더 등과의 만남을 통해 지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김종필 자치행정국장은 "2025년 새해 들어 진행되는 이번 시군방문은 도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민선 8기 3년차를 맞아 도민과 함께 전북의 더 큰 도약을 만들어가겠다"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예상치 못한 돌봄위기, 즉각 돌봄으로

전북자치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서비스' 본격 시행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은 '긴급돌봄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16일 전북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나 다른 가족이 없거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19세 이상 도민을 위해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이동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30일 이내 최대 72시간 범위내에서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으로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면제, 120% 초과인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된다.

서비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시·군에서 대상자로 선정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북자치도사회서비스원은 광역지원기관으로 사업을 운영·관리하며 시·군별 돌봄제공기관 26곳과 협업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북사회서비스원 사옥

서양열 원장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에게 긴급돌봄 제공을 통해 돌봄 공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후에도 돌봄서비스가 끊김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돌봄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